

왕이 향 올리고, 중국 사신은 종사 안녕 기원

지혜의 도량 삼각산 문수사

삼각산은 서울의 진산(鎭山)이다. 신라 때는 부아악(負兒岳)으로, 화산(華山)으로도 불렸다. 잇닿은 봉우리와 겹겹한 산봉우리가 높고 낮아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비류(沸流)와 온조(溫祿)가 남쪽으로 내려와 이곳에 올라 이제 살 만한 땅을 찾았다고 했을 만큼 좋은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남경(南京)으로 불리며 중요시돼 한 때 천도 계획까지 있었다. 그런 까닭에 고려시대 삼각산 비경을 노래한 시가 많다. 우리가 잘 아는 이색도 "소년 시절 책을 끼고 절간에 머무를 제, 돌다리에 뿌려지는 샘물 소리 고요히 들었네. 멀리 보이는 서쪽 비랑에 밝은 빛 반짝반짝, 두어 마디 종소리 저녁 햇빛 향해 치네"라는 삼각산에 대한 시를 남겼다.

공민왕 때 연관을 지낸 이존오(李存吾)도 "세 송이의 기이한 봉우리 멀리 하늘에 닿았는데, 아득한 대기에 구름 연기 쌓였네. 쳐다보니 날카로운 모습 장검이 꽃혔는데, 가서 보니 들쭉날쭉 푸른 연꽃 솟았네. 언젠가 두어해 동안 절간에서 글 읽을 제, 2년간 한강가에 머물렀네. 누가 있어 산천이 무정타고 말하던가. 이제 와서 서로 보니 피차에 처량하네"하며 자신의 시에 삼각산의 비경과 세월의 무상함을 남겼다.

삼각산 주봉은 백운대이다. 그 옆의 인수봉과 만경대가 삼각을 이루는 까닭에 삼각산이라 한다. 그런 지명이 일제시대 이곳에 있던 북한산성을 따서 북한산이라 바뀌 부르면서 지금은 모두 그렇게 부른다. 북의 백운대에서 남으로 문수봉·보현봉에 이르는 능선은 길고도 아름답다. 산세가 좋아 일찍부터 비경과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읊은 시가 많다.

일찍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던 탓에 봉우리마다 불교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문수봉 밑에 있는 문수사는 서울에 있는 사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뜻깊다. 이름만큼 의미도 크다.

문수보살이 누구인가? 여러 보살 가운데 으뜸이 되는 상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이 쓰고 있는 오발관(五髮冠)과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검(利劍)은 문수의 지혜를 상징한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지혜의 증득에 있음을 시사한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기다려지는 선지식이다.

문수보살 신앙은 인도에서 다시 봉우리의 산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며 그 명호를 지성을 청념하면 그 공덕이 수승하다고 했다. 이것이 티베트, 중앙아시아로 전해져 많은 영험 사례를 만들어 냈다.

중국에서 문수신앙은 동진(東晉) 이후 점점 증가하면서 당나라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문수보살 신앙은 신라의 자장 스님이 중국 청량산에서 문수대성을 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오대산 신앙의 확립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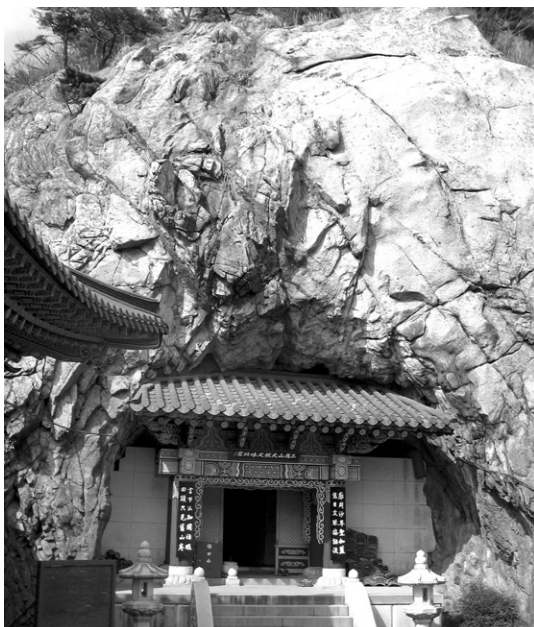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의 문수보살 신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된다. 먼저 재난을 멈추게 하는 현세구복적 신앙관이 두드러지며, 둘째 동자현신(童子現身)을 통한 어리석음의 타파, 셋째

삼각산 문수봉 아래 문수사

이승만 대통령 임태케 한 기도도량

빼어난 경치, 고려시대 탄연·이장용과

조선시대 북학파 이덕무 등 풍류 읍기도



문수사의 문수보살을 모신 석굴. 500나한을 함께 모시고 있다.

우리나라가 부처님과 인연이 깊다고 하는 불연국도 사상 등이다. 이런 신앙관은 고려, 조선에 이어지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현실화 시키려는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문수사는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문수봉 밑에 자리하고 있다. 지혜를 안고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봉을 바라보고 앉은 대웅전은 세월의 무게만큼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이다. 문수사의 사적이 제대로 전해지는 않는 것은 오랜 세월 속에 겪어온 전쟁과 화마 탓이다. 별로 남아있지 않은 자료 속에 그나마 고려시대 문수사를 묘사한 글이 있어 다행이다.

고려 초 탄연(坦然)의 시에 "한 칸 방 어찌 그리 너무도 고요한가, 일만 인연 모두 적막하네. 깊은 돌틈으로 뚫고 가고, 샘은 구름 속에서 새어나네. 밝은 달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산들바람 숲 속에서 일어나네. 누가 저 스님[上人]이라, 고요히 앉아 참 즐거움 배우려나"라고 했다.

작은 암자 문수사의 고요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달 밝은 밤 문수봉과 보현봉의 고운 자태를 보는 듯 아름답다. 이런 탄연의 시가 있음으로써 문수사는 1109년(예종4) 탄연이 창건했다는 설을 넘어 이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문수사의 경관을 노래한 시는 고려 후기에도 있



문수의 지혜는 외도를 조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향을 가르쳐준다. 서울의 사찰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문수사 대웅전

다. 이장용(李藏用)이 이곳을 찾아 절경과 자신의 심정을 나타냈다. 그는 신종 4년(1201) 태어나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고려 문벌귀족의 대표인 이자연(李子淵)의 6대손이다. 이자연은 불심이 깊어 아들을 출가시켰다. 그가 당시 왕실 사찰인 현화사 주지인 덕소이다. 더 나아가 손자인 이자겸도 불심이 깊어 그의 아들 의장을 출가시켰다. 그 역시 현화사 주지를 지냈다. 그런 집안의 후손인 이장용 역시 불심이 깊었다. 원종 10년(1269)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하자 원나라에 가서 원종을 복위시키고 돌아왔다. 그러나 왕이 폐립될 때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이듬해 파면 당했다.

벼슬을 놓고 세상을 유랑할 때 삼각산 문수사를 들렀다. 고요한 적막 속에 있는 사찰을 보니 인생사 무상함이 복받쳤다. 자신의 시에 "벼슬길 그만두려 하나 어리석어 어찌 하리, 좋은 일 가시기 쉬우니 더구나 애석하도다"라는 표현과 "인생들 무어라 허덕이나, 쉽사리 의관 벗지 못함은"이란 표현으로 신세를 달했다.

그는 삼각산 문수사에 들러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을 묘사했다. 예나 지금이나 문수사는 오르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돌층계가 들쭉날쭉 90층이 되는 문수사의 전경은 기이해 세상에는 없는 청련궁(靑蓮宮)이며 크게 슬기로운 진인(眞人)의 집이라 표현했

다. 지금 문수보살을 모신 석굴은 돌이끼 아롱지고, 수풀 속의 감실로 단청이 눈부셨다고 표현한 것을 보아 석굴 앞에 전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장용은 그런 전각을 보고 법계로 들어가는 입구라 하였다. 또한 옛날 선왕이 어향(御香)을 올렸고, 지금도 중국 사신이 와서 종사의 안녕 기원한다는 것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다.

조선조 북학파의 이덕무(李德懋)가 21세 때 친구들과 북한산 사암 11곳을 다니며 각의의 글을 남긴 것이 기유북한(記遊北漢)이다. 문수사를 참배한 그는 석굴을 따라 들어가니 물방울이 비 오듯 옷을 적신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불상 좌우에는 5백 나한을 모셨으며, 이곳을 문수사 또는 보현사라 부른다고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문수사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인연이 깊다. 그의 어머니가 이곳에 와서 기도한 이후 그를 낳았다. 문수의 지혜가 감응한 것일까?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힘든 환경에도 학업을 계속하여 정치학박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 보다는 이박사로 불렀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생각 역시 큰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때 독재자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의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분위기이다. 누구에게나 공과는 있다. 자유당을 이끌며 행한 독재는 과

오이다. 그러나 먹을 것 하나 변변하지 못했던 경제와 6·25를 겪으며 더욱 어려워진 국가를 이끈 것은 공이다. 게다가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해보지 않았던 민중들이 아니던가. 문맹률이 높아 이해력이 부족한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게 하는 것은 웬만한 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그가 82세 이곳을 올라 환관을 쓴 일이 있다. 기독교를 믿었지만 자신의 태몽이 있었던 곳이기엔 지나칠 수 없었나보다. 문수의 지혜를 빌어 나라를 다스렸다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줄지 않았을까? 슬데없는 생각이지만 작금의 정치를 보니 그런 지혜가 있는 지도자의 출현이 간절하다.

지금도 문수사는 화려한 전각이 없다. 세간의 여론 암자와 비교해도 규모가 작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동안 불려온 문수봉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암자이다. 문수보살은 보살사상의 근원이다. 문수의 지혜는 외도를 조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향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세속과 열반이 하나이고 대립과 갈등의 종식이 문수보살의 지혜로 이를 수 있는 불교신앙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김경집/전각대 교수

선남선녀 커플매니저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의 자전 에세이!

스님은 증매쟁이

혜철/A5양장/198쪽/12,000원

활발한 사회활동과 800여 쌍의 선남선녀를 맺어주어 '증매쟁이 스님'으로 알려진 혜철 스님의 살아온 이야기!

스님의 아들로 살아야 했던 유년시절의 가슴앓이, 생활인으로서 치열했던 젊은 시절의 삶, 우여곡절 끝에 운명처럼 걸어야 했던 출가자의 길,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살아가야 하는 출가자로서의 삶과 활동,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등이 때로는 애잔하게, 때로는 가슴 따뜻하게 다가올 것이다.

아침마다 출연 장면

●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books

생물학자와 불교학자의 7가지 대론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날카롭게 펼쳐지는 두 중견 학자의 폭넓은 논의와 토론!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두 세계관의 만남!
 과학과 종교(불교)는 대립적인가?
 과학과 불교는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서로 통하는가?
 과학과 불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이트 나루야, 사사키 시즈카 지음, 이성동, 박정원 공역/A5/303쪽/15,000원